

기획예산처는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8.17.(월) 서울신문은 「장관직 건 ‘교부금 담판’...둘 중 한 사람은 치명타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‘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’을 둘러싸고 서로 직을 걸겠다고 끝장 대치전에 나섰다.”
 - “최 장관은 기획처의 주장대로 내국세 연동은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을 20.79%에 버금가는 교육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. 또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.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획처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- 2026.8.17.(월) 한국일보는 「20.79% 보장 명문화 놓고 “장관직 걸겠다”.. 교육부-기획처 막판 갈등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. 최 장관은 기획처 요구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더라도, 기존 연동을 20.79% 수준의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박 장관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 과정에서 각자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‘장관직을 걸겠다’는 대화도 주고받았다고 한다.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기획예산처 입장 >

-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전반적인 개편방향에 합의하였으며,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.
- 2027년 예산안 발표 전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	책임자	과 장	문상호 (044-214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양성철 (yg1102@korea.kr)

